22110161

International Baccalaureate®
Baccalauréat International
Bachillerato Internacional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Wednesday 11 May 2011 (morning)
Mercredi 11 mai 2011 (matin)
Miércoles 11 de mayo de 2011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2011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아직 남은 자연과의 독대

사람의 몸이 먹는 음식에 의해, 그리고 운동의 질과 양에 의해 형성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보고 듣고 맡는 것에 의해, 그리고 생각의 질과 양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현대 도시인들은 참 괴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보느니 형편없이 망가진 풍경이요, 듣느니 소음이고, 맡느니 매연이다. 그리고 생각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건강을 위해 아파트의 동과 동 사이를 뛰거나 걷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을 자주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라. 아침에 깨자마자 좋지 않은 기사를 잔뜩 싣고 있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 뉴스를 보고, 교통 지옥을 통과해서 직장이나 학교로 간다. 그리고 꼭 같은 지역을 통과해서 귀가하고는 세수하고 저녁밥을 먹기 바쁘게 텔레비 앞에 앉는다.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대부분이 몸에 좋지 않는 음식만 계속 먹고 백 발짝도 걷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꼴일 것이다. 비단 대도시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다. 시골에 가도 강물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고, 길과 논밭에는 비닐 봉지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다. 그곳 사람들의 정신 활동도 신문과 텔레비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린 상태이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군살만 디룩디룩 찐 사람만 주로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몇 년 전만 해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시를 벗어나보라고 말했다. 철마다 바뀌는 자연도 아름답고, 가고 오는 길의 버스 속에서 친구와 주고받는 이야기에는 삶의 맛 혹은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즘 와서는 말이 쉽지 교통 지옥 때문에 그마저 힘든 일이 되었다. 버스나 승용차 대신 기차를 탄다 해도 새마을호가 멎는 곳에 얼핏 다녀온다면 모를까, 다른 열차들은 주말이면 입석 승객이 꽉 차서, 요행 좌석을 차지한다 해도 화장실 한번 마음놓고 다녀오기 힘들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음악이나 문학에, 아니면 그림에 미쳐보는 것이 해결책의 하나가 되겠지만, 아무에게나 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막이 상할 만큼 크게 트는 요즘 음악은 오히려 공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할 성질의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것보다는 다섯 번 나갈 것을 한 번 나가더라도 자연과 의미 있게 만나고 오는 일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적어도 한 계절에 한두 번쯤은 토요일 길이 막히기 전 길을 떠나 월요일 새벽 한두시에 돌아오는 교통 지옥을 살짝 피하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남은 자연은 많겠지만 예를 하나 든다면, 최근 다녀온 오대산 방아다리 약수 뒷산은 십 년 이상의 솔잎이 카펫처럼 깔려 있고 사람 하나 없는 비경(秘境)이다. 그런 곳에서 시각 청각 후각은 물론 몸과 마음의 모든 창문을 의식적으로 활짝 열고 자연과 접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자연과 같이 단둘이 호흡을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나뭇가지에 쳐 있는 거미줄도 새로운 탄력으로 다가온다. 마음의 모양새가 달라질 것이다. 굳이 등산가가 되어 명산을 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욕심이 생기기 쉬운데 욕심은 인간의 생각 가운데 가장 나쁜 운동인 것이다.

황동규 산문집 <젖은 손으로 돌아보라> (1991)

2.

풀 잎

아주 뒷날 부는 바람을
나는 알고 있어요.
아주 뒷날 눈비가
어느 집 창틀을 넘나들지도,
늦도록 잠이 안 와
살(肉)밖으로 나가 앉는 날이면
어쩌면 그렇게도 어김없이
울며 떠나는 당신들이 보여요.
누런 베수건 거머쥐고
닦아도 닦아도 지지 않는 피(血)들 닦으며
아, 하루나 이틀
해 저문 하늘을 우러르다 가네요.
알 수 있어요, 우린
땅속에 다시 눕지 않아도.

강은교 <강은교 시선 풀잎> (1995)